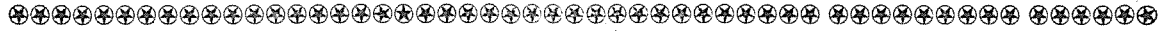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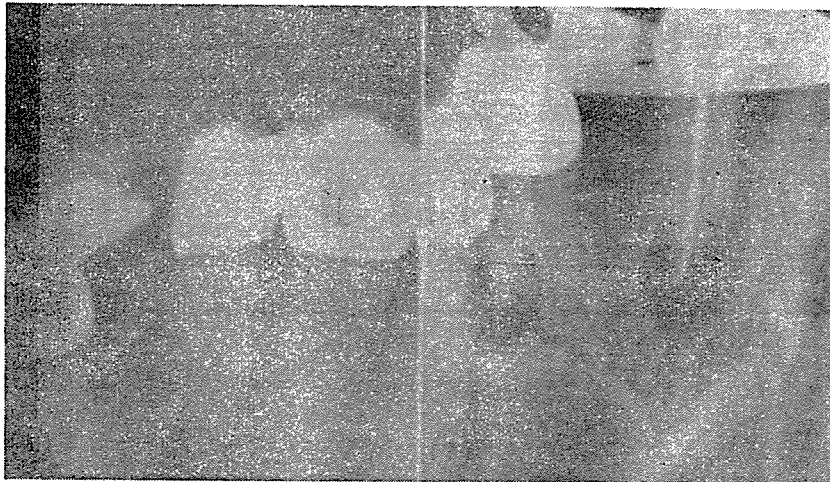


## 치근단 병소를 가진 메탈·크라운 전치 처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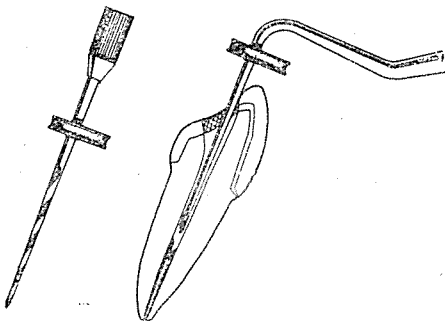
○……다음은 1975년 7월호 미국보철잡지(J. of Prosth. Dent.)의 41~47면에 게재된 논문에……○  
○……서 발췌한 것이다. 저자는 David R. Federick과 Thomas P. Serene이다. 우리도……○  
○……왕왕 당하는 경우를 연구 발표해 놓았기에 여기에 소개하는 바다. ◇ 편집자 주 ◇……○

환자 : 44세 여자로서 타진 반응을 호소하여 왔고 1년전에 차과에서 포스레인의 메탈·크라운을 했다. 육안적으로  
로는 별 이상이 없었고 교합과 치근 접합도 양호했으며 심미성도 좋았다.



◇ 그림 1 ◇ X-선 검사에 치근단 병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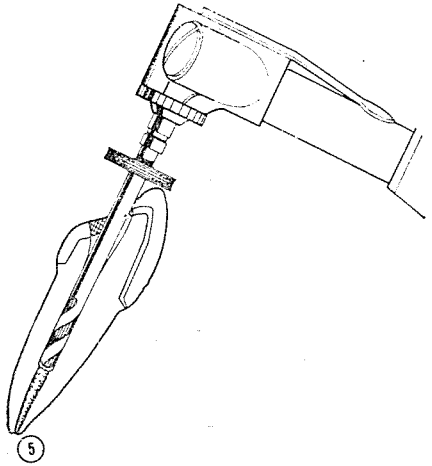
◇ 그림 2 ◇ 보철물은 그대로 두고 실축을 열어 근관치료를 했다. 통법에 의해 근관치료를 하고 2회에 걸쳐 세균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갓타·파쳐(gutta percha)로 근관을 충전하였다. 3개월간 치근단 병소의 치유과정을 관찰하였다. 임시로 해놓은 스타핑(temporary stopping)을 제거하면 갓타·파쳐가 보이도록 하였다. 임시 뜨거운 근관 플러저(plugger)로 갓타·파쳐를 원하는 부위만큼 제거하여 검사하였다. 안전도가 확인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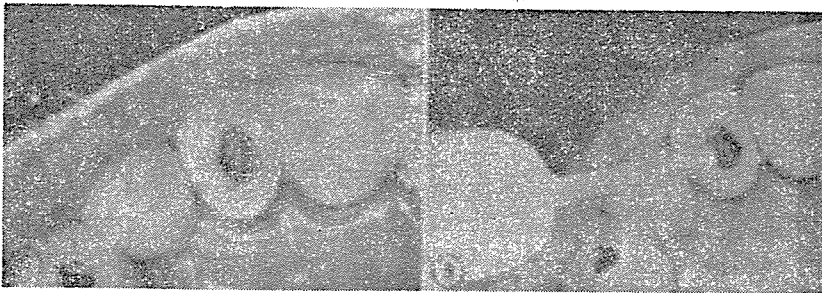
◇ 그림 3 ◇ 리-마를 근관에 삽입시켜 X-선 사진을 촬영해 본다. 그리고 근관의 다운엘·스페이스(dowel space)는 어느정도의 크기와 길이를 갖고 있는지 명기해 놓는다.



◇ 그림 4 ◇ 근관내의 갓타·파쳐를 제거하는 것을 그림으로서 제거하는 기구를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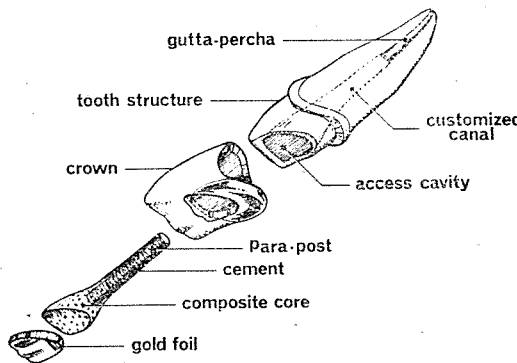


◇ 그림 5 ◇ 다우엘·스페이스는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기구(auto-klutch reduction gear handpiece)에 0.050파라포스트·드릴(parapost drill)을 이용하여 1.25mm직경으로 근관을 확대한다. 그림에 이 드릴의 상부에는 그림에서처럼 고무정지부가 있어 어느 일정한 깊이까지만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절에 기록해 놓은 길이에다 매조하면 되겠다.



◇ 그림 6 ◇ 형성완료된 근관의 X-선상이다. 치근단 1/3에는 갓타·파치가 남아있다

◇ 그림 7 ◇ 다우엘·스페이스에 0.050 스텐리스·스틸·파라포스트를 아연인산계합제로 영구접착한 구강내 사진이다. 잘 관찰하면 톱날이달린 포스트가 스텐리스·스틸·파라포스트 내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크기는 6.0mm이다.



◇ 그림 8 ◇ 컴포지트·레진을 주입하여 셀룰로이드·스트립으로 경화될 때까지 유지시켜 두면 다우엘과 코어(core)를 형성한다. 그리고 포스테인 금관의 설면 형태에 준하여 완성한다.

◇ 그림 9 ◇ 컴포지트·레진으로 다우엘과 코어가 완성된 X-선상.

◇ 그림 10 ◇ 완성되었을 때 가상적으로 각 부분을 분해한 그림.